

---

# 페미니스트 관점에 근거한 소녀비행 요인의 검증을 통한 성-특성적 이론의 모색

## Search of Gender-Specific Theory through Empirical Testing of Factors of Girls' Delinquency based on Feministic Perspectives

---

김지연,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Ji-Youn Kim(0220kky@naver.com), Hyun-Bin Jo(johyunbin@korea.com)

---

### 요약

지금까지 일반적인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성 특히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극히 소수이고, 대표적인 청소년비행 이론들은 성 중립적인 사회이론으로 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들이다. 따라서 여성의 특수하고 독특한 경험을 반영하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보다 설득력 있는 요인을 도출해낼 수 있는 성-특성적(gender-specific) 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성 특성적 요인들의 검증을 수행하였고,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요인들에 대한 학자들 간에 일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요인들은 소년들보다는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성 특성적 요인들로 알려진 요인들로서 개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 스스로의 일탈적 낙인과 주위의 일탈적 낙인, 자존감,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범죄 피해 경험 등의 요인과 비행의 관계를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YPS)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년들의 비행 보다는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후속연구의 수행을 통해 성-특성적 이론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 중심어 : | 소녀비행 | 페미니즘 | 성-특성적 이론 |

###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 of dissatisfaction about own real conditions, deviant labeling, self-esteem, abuse from parent, victimiz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smoking, drinking, run-away, assault, taking away stuffs or money, larceny). The evidence of a strong relation of these factors and girls' delinquency is well known through empirical researches by feminist criminologists. Feminist criminology had attention to the gender-specific factors that could explain girls' delinquency. Most of conventional delinquency theories, such as social bond theory,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focused on bad boys' deviant behaviors. These theories has not been designed to apply to girls' troubles.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there seems to support researches of feministic perspectives.

■ keyword : | Girls' Delinquency | Feminism | Gender-specific Theory |

## I. 서론

오랫동안 여성범죄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견해는 공식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훨씬 그 비율이 낮다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다. 그 가운데 Farrington(1981)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덜 범죄적이고, 만약 범죄를 저지른 여성이 있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라고 보았다[1].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고,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여성범죄는 더 이상 은폐되고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최근 여성범죄의 심각함에 대한 각성과 함께 페미니스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문제는 여성범죄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여자청소년의 문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상당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왕따나 학교폭력,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청소년 문제에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Harris 등(2000)은 비행소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다음의 이유들을 들었다. 첫째, 치우프로그램이나 이론들이 전통적으로 소년들의 요구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했다는 것이며, 둘째, 소년들을 위해 발전된 프로그램들이 소녀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기 힘들다는 사실, 셋째, 소년과 소녀가 비행의 경로를 지나는데 차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로서 사법시스템의 통제를 받게 되는 소녀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며,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성 특히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극히 소수이고, 사회유대이론이나 차별접촉이론과 같은 성 중립적인 사회이론을 적용시켜 그 요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즉, 여성의 특수하고 독특한 경

험을 반영하는 이론들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보다 설득력 있는 요인을 도출해낼 수 있는 성-특성적(gender-specific) 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까지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성 특성적 요인들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관심을 가졌던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성 특성적 요인들로 알려진 요인들로서 개인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범죄 피해 경험 등의 요인과 비행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비교집단으로 남자청소년의 경우도 검증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수집된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YPS) 자료 가운데 질문 내용이 일치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집된 4개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종단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효과를 간파하였던 횡단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특성적(gender-specific) 이론의 필요성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여성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성 특성적(gender specific) 접근으로 페미니즘 측면의 이론들을 들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성 중립적(gender-neutral)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사회유대이론이나 차별접촉이론과 같은 대표적인 청소년비행 이론들을 들 수 있다.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범죄학 이론들이 전통적으로 남성범죄의 설명을 통하여 발전하였다는 점과, 흔히 일반적이라 불리는 이론인 사회유대이론이나 차별접촉과 같은 전통적인 이론들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접근들은 여성이 그들의 성과 관련

된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을 가진다는 현실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비판하였다[2]. 즉 전통적인 이론들이 소녀들의 비행에 소녀들이 관련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적절하긴 하지만, 소녀들의 비행 태도나 기술,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행위에 관련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지만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므로, 소녀와 소년의 비행에 주된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성에 근거한 (gender-based)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3]. 따라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여성의 범죄성을 반영한 그들만의 독특한 경험과 관련된 성 특성적 이론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규명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여성의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에 집중된 개념과 특징이 범죄와 관련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고,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범죄이론들을 수정하여 실제로 여성의 범죄와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여성과 남성의 범죄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는 연구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에 관해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연구 결과 도출된 변수를 이용한 연구들이 거의 없어서, 남성범죄보다 여성범죄에 보다 강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발견된 변수들에 관한 포괄적인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들이 일반적인 비행이나 폭력적인 비행을 예측하는 변수들은 검증을 하였으나, 비행 형태에 따른 성별 차이에 관련되는 변수들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 2.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소녀비행의 원인

여자청소년의 비행과 이러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서 Chesney-Lind는 Joe와 함께한 연구(1995)에서 물리적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잠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화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피해

자화 측정을 통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3], 특히 그녀는 Pasko와의 연구(2004)를 통해 이러한 피해자화 요인들이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물리적 학대나 성적 학대를 경험한 소녀들이 비행이나 일탈행위에 가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 피해자화는 학대받은 경험을 측정하게 되는데, 학대는 가족구성원 혹은 또래나 이성 친구, 이방인에 의해서 신체적, 언어적, 성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학대받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고통을 받는 것도 피해자화 혹은 정신적 피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4].

Artz(1998)도 여자청소년의 학대경험은 가출과 비행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밝혀내었다[5]. Arnold(1990)와 Giffus(1992)의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들은 어린 시절 피해경험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Wesely와 Wright의 연구(2005), Sweet과 Tewksbury의 연구(2000)는 어린 시절의 학대가 10대 소녀를 어떻게 가출로 이끄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좌절과 사회적 배제 등을 유발하고, 이러한 성적 취약함이 위험한 행동에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6].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피해 경험이 많다는 사실이 주장되고 있고, Finkelhor와 Baron의 연구(1986)에서는 성적학대를 받는 청소년의 70%가 소녀들이며[7], Russell(1986) 역시 소녀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보다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두려움, 분노, 좌절, 우울함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가출, 학교에의 부적응, 무단 결석, 마약, 임신 등의 일탈행위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8]. Richie(2000) 역시 학대나 피해경험이 일탈행위 참여를 유도한다고 보았고, 그의 1996년 연구에 따르면, 교도소에 구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조사에서 최소 절반 정도가 구금되기 전 성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9].

Harlow(1999)에 따르면 여성의 물리적 혹은 성적 학대의 경험이 마약이나 음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다. 또한 소녀들이 소년들에 비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이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두고 마약이나 알콜에 중독되어 사회에서 고립되고 금전을 얻기 위해 매춘이나 들치기, 절도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Chesney-Lind와 Joe의 연구(1995)에서 보듯이 소년들도 소녀들처럼 피해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이 비행유발하지만, 피해자화가 여성에게 보다 설명력이 높은 이유는 소녀들은 피해경험에 대해 소년들과 다른 반응을 겪게 된다는 것으로 특히 어린여성이라는 지위로 인해 성적으로 취약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소녀들은 보통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엄매이게 되고, 이는 소녀들의 자아와 책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Miller의 소녀들의 강도에 관한 연구(1998)와 Miller와 Decker의 소녀들의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2001)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Miller와 White의 연구(2004)는 소녀들의 폭력이 사회적 성적 불평등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Messerschmidt(1993)에 따르면, 소년들은 폭력적으로 사회화되고 이러한 행위가 남성성의 표출로 용인되는 반면, 소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비행의 요인으로 우울함이나 불만, 불안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들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부정적인 행태들의 숙주가 되는 요인으로, 비행과 범죄라는 행동에 특히 관련되는 요인으로 보았다. Crawford 등의 연구(2001)에서는 이는 특히 사춘기에 나타나는 감정으로 피해경험이나 트라우마, 가족의 해체 등과 관련되는 요소로 보고 있다[10].

피해자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변수가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 비행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은 일반진단가들에 의해서도 검증되었다. Broidy와 gnew(1997)는 GST가 비행의 성별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적이 있는데[11], Agnew(1992)는 불만스러운 사건 경험, 친구나 가족의 죽음, 부모이혼, 질병, 아동학대나 가혹행위로 인한 분노 등을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들로 보았고 이는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유발한다고 보았다(Akers & Sellers, 2004: 270-272). 또한 Agnew(2001)에서 그는 학대와 범죄피해 경험이 비

행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학대나 피해경험이 다른 긴장보다 더 부당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감정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이 비행이나 일탈행위로 표출된다고 보았다[12].

이 때 긴장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소년들이 폭력적인 행위에 동참하는 반면, 소녀들은 음주나 흡연, 가출이나 무단결석과 같은 일탈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Chesney-Lind와 Shelden(1992)은 일반적으로 성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폭력과 재산비행을 종속변수 척도로 이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가출이나 음주, 무단결석 등의 지위비행은 무시되었는데, 소녀들이 지위비행을 저지르는데 있어 긴장이 주요 요소라면 이러한 비행도 구분되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Segrave와 Hastad(1983) 역시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요인이 남자청소년의 비행보다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예측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Morris(1964)는 비행을 저지르는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관계에 보다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비행소녀들이 비행소년들보다 자신들의 가족이 보다 불행하다고 여긴다고 보았다. Esbensen 등의 연구(1999)에서는 폭력비행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가족과 친구 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경험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소녀들이 비행소년들에 비해 정서적, 성적, 육체적 학대와 같은 극단적인 긴장요소를 더 많이 경험하며, 죄책감이나 무가치함, 우울함,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idy(2001)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수준의 긴장과 분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억압, 불안, 후회와 같은 감정으로 긴장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13].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긴장이나 좌절, 노여움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의 범죄율이 훨씬 낮지만, 극단적인 긴장은 여성의 폭력적인 반응과 같은 일탈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

이라고 보고 있다[14].

불만과 우울함에 대해서 김준호 등의 연구(1995)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갈등적인 분위기가 높다고 느낀 경우일수록 비행 특히 지위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요인들이 비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자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남자에 비해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4개년 간 실시한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대상자들은 2차년도인 2004년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로서 2007년 조사 당시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동일한 청소년들인데, 그 가운데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2.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는 흡연, 음주, 가출, 중상해, 뺑뺑기, 절도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비행을 '지난 1년간 본인이 한 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비행의 원인이 되는 변수로서 성별, 시기, 개인적 상황 불만,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 주위의 일탈적 자아낙인, 자아존중감, 부모학대, 피해경험을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녀, 시기는 중3에서 고3의 4개년을 측정하였고, 개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건강상태, 심리적 혹은 정신적 문제, 집안 경제사정 곤란, 부모의 가정불화나 이혼으로 인한 불만'을 측정하였다. 스스로의 일탈적 낙인은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나쁜 사람이라 생각한다, 실패한 사람이라 느낀다', 주위의 일탈적 낙인은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로 생각한다,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자아존중감은 '내가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부모학대

는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한 것을 본 적이 많다,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다'를 Likert 식의 5점 평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고, 이들 문항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각각의 변수로 묶은 것들이다. 피해경험은 지난 1년 동안 '심한놀림', '협박', '왕따', '폭행',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이나 물건 뺏김'을 당한 적이 있는지와 없는지를 측정하였다.

#### 3. 분석방법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도 .05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우선 시기별로 성별에 따른 각 형태의 비행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원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그래프 형태로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각 형태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해 남자청소년의 경우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를 함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목변수인 성별, 시기와 피해경험은 더미변수로 만들어 코딩하였고, 성별의 경우 남자, 시기의 경우 2차, 피해경험은 피해경험이 없음을 각각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2004년도 중3 코호트로서, 중3인 2차시기 자료로부터 고3인 5차시기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차시기 표본수는 3,188명으로 추적조사 성공률은 92.4%, 3차시기는 3,125명으로 성공률은 90.6%, 4차시기의 경우 3,121명으로 성공률 92.9%, 5차시기의 경우 2,967명으로 성공률은 88.5%인 것으로 나타났다(KYPS, 2008).

2. 2004-2007년 성별에 따른 비행 빈도 변화

각 각의 비행의 시기에 따른 변화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기 위해 다원변량분석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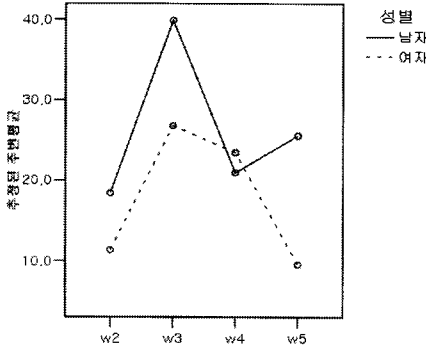


그림 1. 흡연빈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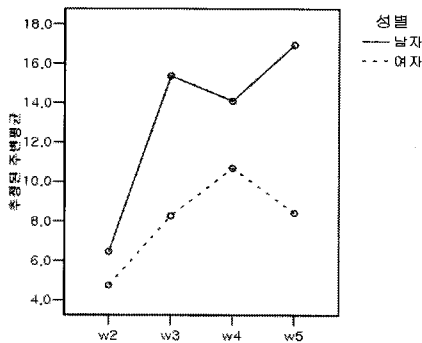


그림 2. 음주빈도의 변화

우선 [그림 1]은 흡연에 관한 집단 간 평균값을 보여주는 그래프로서 남녀 모두 중3에서 고1로 가면서 평균값이 증가하다 고1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남자의 경우 고2로 가면서 급격히 감소했다가 고3으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 고2에서 고3으로 가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2시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음주에 관한 그래프로서 전반적으로 남자

들이 여자들에 비해 음주율이 높으며, 남자들은 고2를 제외한 전 시기동안 음주율이 증가하는 반면, 여자들은 중3에서 고2까지 증가했다가 고2를 기점으로 고3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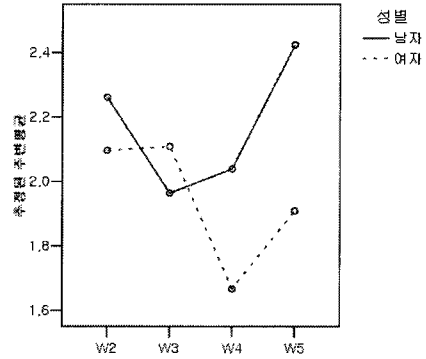


그림 3. 가출빈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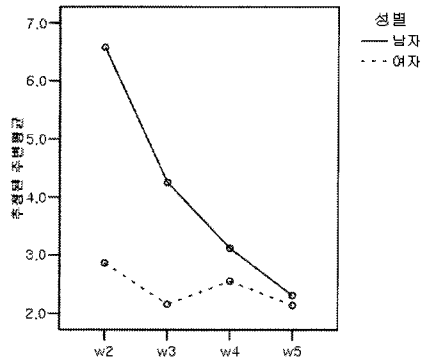


그림 4. 증상해빈도의 변화

[그림 3]은 가출에 관한 그래프로서 고1을 제외한 전 시기동안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가출율이 높았으며, 남자는 중3에서 고1로 갈수록 감소했다가 고3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여자는 중3과 고1은 변화가 없고 고1에서 고2로 갈 때 크게 감소했다가 고3으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증상해에 관한 그래프로서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값이 낮아지는 반면, 여자는 전반적으로 시기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평균값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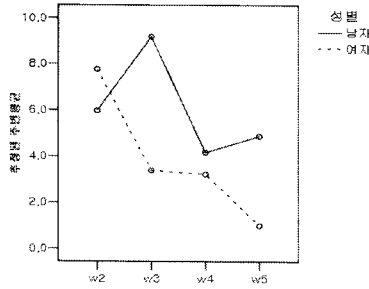


그림 5. 뺑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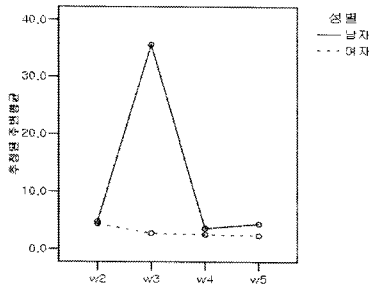


그림 6. 절도빈도의 변화

[그림 5]는 뺑뺑기에 관한 그래프로서 중3을 제외한 전 시기동안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평균값이 높았으며, 남자들은 중3에서 고1로 가면서 평균값이 증가했다가 고2로 가면서 다시 감소하지만, 여자들은 중3때부터 고1로 가면서 평균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절도에 관한 그래프로서 남자들은 중3에서 고1로 갈 때 평균값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고2로 가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여자들은 시기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 형태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표 2], [표 3]과 같다. 이 때 f는 여자, w3, w4, w5는 분석시기이고, a는 개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 b1은 자기 일탈적 낙인, b2는 주위의 일탈적 낙인, c는 자이존증감, d는 부모학대, e12부터 e62는 각 각 심한 놀림이나 조롱, 협박, 왕따, 중상해, 성폭행이나 성희롱, 뺑뺑기의 6가지 형태의 피해경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표 1. 여자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흡연	음주	가솔	중상해	뺑뺑기	절도
	Beta1					
w3	17.180 (.102)	3.946 (.050)	-.101 (-.019)	-.459 (-.058)	-4.371 (-.114)	-.648 (-.066)
w4	17.243 (.097)	6.607 (.088) **	-.569 (-.102)	-.406 (-.046)	-7.764 (-.153)	-1.508 (-.144)
w5	1.188 (.005)	5.585 (.075) **	-.258 (-.036)	-.543 (-.055)	-1.144 (-.008)	-1.035 (-.068)
a	25.701 (.236) **	2.087 (.044) *	-.309 (-.106)	-.210 (-.058)	.664 (.036)	.342 (.066)
b1	-2.803 (-.028)	-.152 (-.004)	.331 (.130)	-.185 (-.051)	1.148 (.068)	.506 (.090)
b2	16.350 (.198) **	5.644 (.139) **	-.079 (-.037)	.428 (.152)	.001 (.000)	.671 (.179)
c	5.766 (.058)	-2.071 (-.045)*	-.440 (-.167)	-.141 (-.037)	-1.527 (-.089)	-1.088 (-.217)*
d	-9.529 (-.110)	.377 (.009)	-.109 (-.042)	.027 (.009)	-1.332 (-.087)	.018 (.004)
e12	14.759 (.051)	.133 (.001)	-.370 (-.041)	-1.922 (-.184)	16.920 (.333)*	.828 (.057)
e22	-26.859 (-.065)	7.380 (.022)	-.458 (-.041)	5.668 (.425) **	20.147 (.273)	16.447 (.524) **
e32	-28.160 (-.085)	-9.421 (-.034)	-.624 (-.039)	-.765 (-.044)	-18.399 (-.217)*	-1.239 (-.055)
e42	109.923 (.332) **	3.798 (.014)	-.204 (-.024)	-.998 (-.108)	-3.357 (-.077)	-1.286 (-.080)
e52	-16.381 (-.030)	1.018 (.003)	.014 (.001)	.477 (.033)	-2.114 (-.035)	-9.774 (-.380)*
e62	-70.907 (-.172)*	1.627 (.005)	-.190 (-.020)	-.508 (-.043)	10.671 (.246)*	4.844 (.332) **
상수	-70.296	-3.561	3.781**	3.101	7.974	2.976
F	3.155**	6.251**	.527	1.442	2.692**	4.266**
R <sup>2</sup>	.189	.035	.048	.190	.347	.388

\* p(0.05), \*\*p(0.01)

\* 준거집단: w2, e11, e21, e31, e41, e51, e61

더미변수인 성별의 경우 m인 남자, 시기의 경우 w2 즉, 2차년도인 중3시기가 준거집단이고, 피해자화 더미 변수 경우 각 형태의 피해자화에 대해 피해경험 없음인

e11부터 e61까지가 준거집단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비행요인들이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의 비행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표 1]의 여자청소년의 비행요인에 관한 분석을 살펴보면, 개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클수록, 주위의 일탈적 낙인이 클수록 흡연과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음주와 절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피해자화와 비행의 관계는, 흡연의 경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뺨찌기를 당한 경험이 없을수록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중상해의 경우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뺨찌기는 심한놀람이나 조롱, 뺨찌기를 당한 적이 있을수록, 왕따를 당한 경험이 없을수록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절도는 협박과 뺨찌기를 당한 적이 있을수록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없을수록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남자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여주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비행유발요인 가운데 가출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을수록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음주는 고3일수록, 주위의 일탈적 낙인이 클수록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해는 고3일수록 저지를 가능성이 낮으며, 뺨찌기의 경우 뺨찌기를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표 3]은 남녀 모두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형태의 비행 가운데 성별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것은 음주로,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남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흡연의 경우 폭행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일수록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뺨찌기는 같은 형태의 비행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동일한 형태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출의 경우 협박, 왕따,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남자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흡연	음주	가출	폭행	뺨찌기	절도
Beta						
w3	21.029 (.104)	9.433 (.087) **	.149 (.022)	-3.020 (-.091)	2.682 (.062)	26.304 (.126)
w4	1.479 (.007)	8.049 (.081) **	-.045 (-.007)	-5.015 (-.143)	-6.018 (-.109)	-.555 (-.002)
w5	7.734 (.517)	11.639 (.124) **	.140 (.017)	-5.699 (-.156) *	.448 (.007)	6.931 (.025)
a	-9.713 (-.074)	-1.476 (-.023)	-.015 (-.004)	.658 (.035)	-1.461 (-.064)	10.326 (.080)
b1	-11.793 (-.103)	-.625 (-.012)	-.001 (.000)	.494 (.033)	-3.945 (-.208)	10.840 (.106)
b2	10.490 (.100)	7.327 (.144) **	.219 (.082)	.318 (.025)	1.326 (.084)	-4.697 (-.054)
c	4.671 (.040)	1.342 (.024)	.074 (.023)	.906 (.058)	1.913 (.100)	-7.433 (-.066)
d	2.361 (.022)	1.455 (.026)	.309 (.098)	-.439 (-.030)	.184 (.010)	-11.980 (-.118)
e12	-17.857 (-.046)	-3.704 (-.015)	.939 (.065)	-3.808 (-.078)	-1.854 (-.028)	-23.718 (-.069)
e22	-12.773 (-.023)	.579 (.002)	-1.990 (-.152)	-1.101 (-.016)	-13.811 (-.184)	2.941 (.007)
e32	42.979 (.027)	1.030 (.002)	4.854 (.227) **	-4.283 (-.038)	8.344 (.047)	-38.879 (-.039)
e42	-4.643 (-.007)	.005 (.000)	-.732 (-.058)	-.375 (-.006)	15.589 (.223)	10.170 (.026)
e52	-	25.344 (.029)	7.366 (.299) **	7.088 (.032)	-	28.403 (.040)
e62	2.583 (.006)	-.791 (-.003)	1.288 (.098)	-3.378 (-.057)	12.794 (.240) *	-2.398 (-.007)
상수	30.985	-10.951	.520	2.570	8.762	13.070
F	.849	5.478**	3.913**	.603	1.418	.387
R <sup>2</sup>	.035	.029	.221	.034	.197	.050

\* p(0.05), \*\*p(0.01)

\* 준거집단: w2, e11, e21, e31, e41, e51, e61



표 3.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흡연	음주	가솔	폭행	뺨찌기	절도
B(beta)						
f	-10.218 (-.059)	-4.718 (-.059) **	-.264 (-.048)	-2.358 (-.089)	-1.256 (-.036)	-10.863 (-.082)
w3	19.500 (.102)*	6.297 (.066) **	-.181 (-.029)	-2.494 (-.088)	-1.697 (-.041)	13.345 (.087)
w4	7.752 (.039)	7.020 (.079) **	-.239 (-.038)	-3.647 (-.120) *	-4.259 (-.080)	-2.843 (-.017)
w5	6.550 (.030)	8.449 (.099) **	.097 (.013)	-4.370 (-.136) *	-1.727 (-.022)	.869 (.004)
a	3.009 (.025)	.113 (.002)	-.259 (-.079)	.345 (.023)	-.785 (-.038)	4.686 (.055)
b1	-7.881 (-.072)	-.279 (-.006)	.134 (.047)	.337 (.027)	-2.045 (-.114)	7.117 (.090)
b2	11.980 (.124) **	6.674 (.143) **	.135 (.055)	.421 (.039)	1.451 (.099)	-2.359 (-.039)
c	4.933 (.044)	-.058 (-.001)	.006 (.002)	.578 (.043)	.724 (.040)	-4.751 (-.061)
d	-1.665 (-.017)	.969 (.019)	.150 (.051)	-.355 (-.030)	-1.178 (-.070)	-4.890 (-.072)
e12	-6.231 (-.018)	-2.416 (-.010)	-.211 (-.018)	-2.937 (-.073)	9.099 (.156)	-7.909 (-.033)
e22	-21.094 (-.043)	1.520 (.004)	-1.582 (-.128)*	1.050 (.019)	-1.071 (-.014)	.228 (.001)
e32	-.071 (.000)	-3.949 (-.010)	3.413 (.181) **	-1.892 (-.023)	-8.875 (-.077)	-10.969 (-.024)
e42	66.022 (.138) **	2.577 (.008)	.154 (.015)	-1.159 (-.027)	5.404 (.099)	5.446 (.021)
e52	8.099 (.008)	12.090 (.021)	2.729 (.154) **	4.708 (.055)	14.767 (.155)	4.235 (.009)
e62	-22.317 (-.050)	-1.779 (-.006)	.107 (.009)	-2.891 (-.061)	8.501 (.175)*	-1.210 (-.005)
상수	-.932	-5.799	1.651	3.409	9.117	10.628
F	1.615	11.234 **	2.053*	.757	1.494	.462
R <sup>2</sup>	.046	.033	.080	.032	.124	.032

※ \*p<0.05, \*\*p<0.01  
 ※ 준거집단: m, w2, e11, e21, e31, e41, e51, e61

### V. 논의 및 결론

앞서 다원변량분산분석 결과 그래프에서 보았듯이 모든 형태의 비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참여를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를 적게 저지른다는 공식기록의 결과와 일치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덜 범죄적이라는 Farrington(1981)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여자청소년의 심각해지는 비행이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요인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피해자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 주위로부터의 일탈적 낙인, 자아존중감 요인들이 비행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러한 비행요인이 남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여자청소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보다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주장대로 이러한 요인들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성 특성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질병이나 가족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개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여자청소년의 비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이혼이나 질병, 가족의 죽음 등의 불행으로 인한 불만이 비행을 유발한다는 Agnew(1992)의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비행소녀들이 비행소년들보다 자신의 가족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Morris(1964)의 주장과도 일치하였다. 또한 우울함이나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탈행위의 숙주가 된다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주장과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남자청소년의 비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고, 이러한 요인들이 남자청소년의 비행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본 김준호 등(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피해자화와 비행과 관련하여 Joe & Chesney-Lind(1995)의 주장처럼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적인 피해자화 측정을 통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에 비해 이러한 피해자화가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피해자화 경험이 비행을

유발한다는 Arnold(1990), Gilfus(1992), Crawford 등 (200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비행의 형태와 관련하여서 피해자화나 부정적인 감정과 증상하나 뺨뜯기, 절도와 같은 폭력비행이나 절도 비행과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흡연이나 음주, 가출과 같은 지위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Sheldon(1992)의 비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행을 측정할 결과 가출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여자청소년의 비행이 성 특성적 요인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의 경우 남자청소년에게만 이러한 요인들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Esbesnsen 등(1999)의 연구는 폭력비행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고 피해자화 경험이 있는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도 협박, 심한 놀림이나 뺨뜯기와 같은 피해경험이 증상하나 뺨뜯기와 같은 폭력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경우 폭력비행보다는 음주나 절도와 보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호 등(1995)의 연구 역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는데, 이 역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부모학대가 남녀 모두 비행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많은 페미니스트 학자들과 긴장 이론가들이 가정으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소녀들의 비행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의 언급한 것처럼 타인으로부터의 피해경험은 비행과 상관성이 있었지만, 부모로부터의 피해는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가출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화가 소녀들의 비행에 보다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녀들 중에 왕따나 성폭행 혹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이 소녀들의 가출을 조장할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또한 남녀 모든 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를 보면 음주비행을 제외한 전반적인 비행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피해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뺨뜯기와 같은 도구적 형태의 비행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같은 형태의 비행을 또 다른 이에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절도와 같은 형태의 범죄는 어린 시절 같은 형태의 피해경험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왕따나 협박, 성희롱이나 성폭행 같은 형태의 피해경험이 가출의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 특히 심리적인 충격을 수반하는 이러한 형태의 비행으로 인한 피해경험이 가출이라는 또 다른 범죄환경에의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일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논의한 바와 같이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분석에 이용한 비행유발 요인들이 남자청소년의 비행보다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보다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의 포괄적인 검증을 통한 여자청소년 비행에 관련되는 성 특성적 통합이론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피해경험이 비행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도 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요인들이 전적으로 여자청소년의 비행에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형태의 비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남자청소년의 경우에 보다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많은 후속 연구의 검증을 통하여 확실한 이론으로의 접근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1] F. Heidensohn, *Women and Crime*, MACMILLAN PRESS LTD, 1996.
- [2] Leah E. Daigle, *Gender, risk factors and Juvenile misconduct: assessing the generality-specific debate*, University of Cincinnati, Ph. D. Dissertation, 2005.
- [3] M. Chesney-Lind and R. Pasko, *The Female*

*Offender*, SAGE Publications, 2004.

- [4] K. Holsinger, "Feminist perspectives on female offending: Examining real girls' lives," *Women and Criminal Justice*, No.12, pp.30-34, 1989.
- [5] 정익중, "청소년비행의 성별차이", *한국청소년 연구*, 제16권, 제1호, pp.389-410, 2005.
- [6] J. K. Wesely, "Considering the context of women's violence: gender, lived experiences, and cumulative victimization," *Feminist Criminology Vol.1, No.4*, pp.303-328, 2006.
- [7] D. Finkelhor and L. Baron, "Risk factors for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No.1, p.45, 1986.
- [8] A. Browne and D. Finkelhor,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99, No.69, pp.267-268, 1986.
- [9] B. Richie, K. Tsenin, and C. Widom(Eds.), "Research on women and girl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pp.1-13, 1999.
- [10] T. N. Crawford, "Internalizing symptoms in adolescents: Gender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parental distress and discord,"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No.11, pp.110-112, 2001.
- [11] M. Morash and B. O. Moon,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train on the delinquency of South Korean youth," *Youth & Society*, Vol.38, No.3, pp.299-321, 2007.
- [12] J. Belknap, 윤옥경 외(역), *여성범죄론: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CENGAGE Learning, 2009.
- [13] R. L. Akers and C. S. Sellers, 민수홍 외(역), *범죄학이론*, 나남, 2004.
- [14] L. J. Siegel, 이민식 외(역), *범죄학: 이론과 유형*, CENGAGE Learning, 2009.
- [15] 김준호, 김은경,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5.

저자 소개

김지연(Ji-Youn Kim)

정회원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04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08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관심분야> : 청소년비행, 경찰연구

조현빈(Hyun-Bin Jo)

정회원



- 1999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1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석사)
- 2004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범죄, 경찰수사, 민간경비